하나님 얼굴 향한 정동진 신앙

(신명기 31:1~30)

16.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17.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18.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얼굴 향한 정동진 신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 얼굴 향한 정동진 신앙'
정동진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강릉 시내에서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약 18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항구입니다. 아마 조선시대에 이미 '정동진'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바를 정(正), 동녘 동(東), 나루 진(津)을 써서 정동진인데, 한양의 광화문을 기준으로 '정 동쪽에 있는 나루터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서울 도봉산과 같은 위도 상에 있어서 정 동쪽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그 옛날에 한양을 기준으로 정 동쪽이기 때문에 해를 가장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신라 때부터 임금이 사해용왕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는 이 정동진에 와서 지냈다고 합니다. 2000년을 맞이해서 국가지정행사로 밀레니엄 해돋이 축전을 치르기도 했던 한반도 제일의 해돋이 명소입니다. 또한 드라마 모래시계 때문에 정동진역이 유명한데 여주인공이 운동권학생으로 도망을 다니다가 정동진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경찰에게 체포가 되어서, 타려던 기차가 무심코 지나가는 광경을 수갑을 찬 채로 바라보는 장면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동진역이 유명한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세계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기차역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동해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남한 땅에서 가장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정

동진인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사는 삶이 바로 복지의 삶입니다. 매일매일 동해바다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떠오르는 하나님의 얼굴을 해돋이를 보듯이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선민이고 그들이 사는 곳이 복지인 것입니다. 복지가 아닌 곳의 삶은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진 땅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라고 하십니다. '내 얼굴을 숨겨'라는 말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얼굴이 사라진 땅이 바로 저주의 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삶과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진 땅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얼굴 향한 정동진 신앙'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기도 하고 이민을 가서 다른 나라에서 살기도 합니다. 정동진은 대한민국 땅의 동해안에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정동진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은 동해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도 보다가 6시 20분쯤에 바닷가로 나가서 걸었습니다. 7시 10~20분쯤 되니 해가 떠오릅니다. 여러분이 다 해돋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떠오르기 전에는 주변을 붉게 물들이다가 바다 위로 이글거리며 둥실 떠오르는 태양의 빨간색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색이 있을까요? 중천에 떠오르는 해는 빛 덩어리 같아서 우리가 쳐다볼 수 없습니다. 복지의 삶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 해돋이를 보게 되면 더 이상 이 땅에서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동해안의 떠오르는 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아도 사람의 마음이 뭉클해지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에 어떤 감동이 주어지겠습니까? 이런 감동의 하나님의 얼굴 해돋이를 봄이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십중팔구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뒤집어 씌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만 온전한 감동이 주어지고 온전한 충만이 주어지면서 이 세상을 향한 소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소원과 바람을 수시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가 멋지면 나도 갖고 싶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여자가 명품 백을 들고 있으면 나는 언제 들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동창을 만났는데 아들이 서울대를 들어갔다고 하면 우리 아들딸도 어떻게 해야 서울대를 들어갈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한 소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려올 수가 없고, 내려와도 다 범벅이 되어서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을 봐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정동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 있으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동해안에 뜨는 해는 정동진이 아니라도 비슷한 각도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백과사전에서 정동진을 찾아보니 "우리나라 제일의 해돋이 명소"라고 합니다. 제일의 해돋이 명소이지만 유일한 해돋이 명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얼굴 해돋이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온 세계의 제일의 명소이고 온 세계에서 유일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격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실 때에는 주님만을 바라보십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가 지구상에 70억이 있어도 하나님은 오직 주님을 향해서만 얼굴을 두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합니다.
하나님아버지를 기준으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이어진 직선의 연장선상에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하며 그 분의 얼굴을 정면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직선상에 있습니다. 요1:1~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백합화의 이야기를 하셨을 때의 백합화는 어떻게 지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예수님과 당신을 잇는 직선상에서 백합화를 만드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을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에게 임해서 주님을 통과해서 백합화가 나타난 것이고 세상이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창조하신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이어지는 직선상에서 새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아버지께서 바다를 지으시고자 하시면 그 생각이 예수님께 받아들여지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잇는 직선이 예수님 뒤쪽으로 뻗어나가며 그 직선상에 바다가 생겨나고, 구름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면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직선의 연장선상에 구름을 만드십니다. 모든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면 예수님이 그 생각을 받아들이심으로 만물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잇는 직선상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필연적이고 운명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잇는 직선상에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백합화가 태어나서 꽃피고 시들어 죽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원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운명적이고 생래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잇는 직

선상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그 직선상에 만들어 놓으셨으나 거기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원하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직선상에서 떠나지 않아야 함을 결단해야 하고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하고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서 예수님을 통과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직선을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먹어야 할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 예수님을 통과해서 아담에게 임하고 하와에게 임하므로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매사가 내가 사업장에 나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잇는 그 직선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시고 말씀의 총화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은 하나도 빠짐이 없고 손상됨이 없이 받아들이셨으므로 그 분이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 분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과 이어지는 직선을 통과해서 연장될 때 연장선상에 서 있으므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백합화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듯이 우리는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비로소 그 선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잇는 직선의 연장선상에 있을 때 태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억제되게 됩니다.
삼라만상이 조화롭게 움직여가는 이유는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잇는 직선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자발적으로 해야 했으나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 볼 수 있는 직선상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억제되어 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인간의 삶을 덮게 되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지금도 경험되고 있습니다. 마치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이 건널 때에는 물이 벽처럼 쌓여서 억제되어 있었지만, 애굽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덮쳐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족속들을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전쟁을 통하여 물리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면서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좇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런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앞서 나가시며 전쟁을 하셔서 복지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복지에 살게 될 선민들이 하나님을 벗어나 다른 신을 음란하게 섬길 것을 예언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조금도 긍정적으로 보시지 않으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긍정의 힘” 같은 것은 성경하고는 상관도 없는 것이지요.

‘음란히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서 하나님 계심을 증거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가장 깊고 거룩한 곳에는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가장 깊고 거룩한 그곳에 돈, 자녀, 건강, 명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깊은 곳에 들어온 것의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추구하게 되고 소원하고 갈망하고 열망하게 되는데 이것이 음란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선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러한 결과가 빚어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서 얻으신 가나안 땅에서 선민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에 얼굴을 숨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얼굴을 숨기신다.’는 말을 내용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타락이후에 하나님의 얼굴의 해돋이가 나타나지 않은 가려진 땅에서 살게 되는 것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여진 삶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여진 삶에서 선민들을 선택하신 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의 해돋이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에 열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까꿍’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고, 그 기적을 보면서 마음이 계속 일직선으로 가면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아버지께 도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이나 사물이나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을 통과한 직선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역사하시면서 증거를 보게 하셨고 그 뒤에는 또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늘에서 직선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담고 계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선민들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됩니다. 우리 선민들은 말씀을 증거삼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잇는 직선의 연장선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 우리 마음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로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말씀으로 오셔서 이루신 말씀의 완성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서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는 목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70억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뿐이시므로, 우리 마음이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시선이 갈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 얼굴의 해돋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동해바다의 해돋이를 볼 때의 몇 천배, 몇 만배의 감동이 주어지고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복지를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선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민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선민이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한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말씀의 증거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는데도, 이들이 외면한다면 출애굽 때처럼 당신을 '까꿍' 하고 드러내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신 것이지 사실 외면한 것은 선민들이 외면한 것입니다.
그러면 선민들은 왜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싫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좋아졌기 때문인데 이것을 '음란히 섬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신'은 하나님 말고 내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는 것 자체가 음란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인데 왜 다른 것을 들여놓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 죽게 됩니다. '죽는다.'는 것은 내 얼굴의 방향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방향이 돌려지면 주님께서 돌려지는 마음을 붙잡고 부활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이 돌려집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기쁨이고 만족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 부활의 지점이고, 승천을 하는데 주님이 끌고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데 여기에 감동과 충만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이 소원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정동진으로 돌아와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갖고 싶고, 이루고 싶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원과 바람과 희망이 나타날 때에 반드시 정동진으로 돌아와서 소망의 방향이 하늘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일직선상에 계심을 유지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또 하늘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일직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자리에 두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의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과의 직선상에 놓여있습니다. 백합화, 다람쥐, 하늘에 떠 있는 구름, 나무, 산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러나 인간만은 죄악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는데 선악과 따먹은 결과요, 유전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이 정면으로 보이질 않는 것이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삼킨바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삼킴을 당한다.'는 말이 참 재미있는 단어 아닙니까? 뒤따라 나오는 재앙과 환란은 삼켜진 결과일 뿐입니다.
'혼돈'의 반대는 질서인데 질서와 복지의 삶은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호불호를 어떻게 말을 하든지 내 마음에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이나 로마 감옥에 갇힌 것도 선교의 진보를 이루는 일이 된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일어나야 될 일만 일어나는 흔돈이 걷힌 질서의 삶이 되게 됩니다.
'공허'는 무슨 일을 해서 그것을 이루었을 때는 기뻤는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나서 마음이 자꾸 공허해진다면 복지에서 탈피한 저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흑암이 덮인 깊음'은 앞을 보고 뒤를 봐도 캄캄하기에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정동진에 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으로는 되지 않으므로 말씀이신 예수님 자체가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70억 인구 중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른 인간들은 피조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가 아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을 항상 정동진에 두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리대금업자에게 돈 빌려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완전히 흔돈과 공허가 임하고 우울함에 빠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정동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정동진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빠져 있든지 우리 옆에 있습니다. 정동진으로 돌아와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잇는 일직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감동이 되면 그 나머지 일들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면 산도 뽑혀서 바다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얼굴을 향한 정동진 신앙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시고 그렇게 이어지는 직선상에만 머물기 위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유전죄의 영향아래 끊임없이 다른 신을 향하려는 나의 마음이 죽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정동진에 머묾으로써 진정한 복지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